

## 저녁 눈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인천지원

책임연구원 정학규

화려함도 없이 그저 누추함도 없이 희범하게 산비탈을 내려오는 까닭에 삼살개마저 짓지 않는구나. 해거름뉘도 없이 저문 황토길을 따라 고즈넉이 흙을 덮으며 오고 있는 그 눈발은 누집 손님이관대 마중나오는 이도 없더란 말이냐. 단아하면서도 평화로이 나지막한 동구밖을 돌아오는 데도 끝내 사립문을 나서는 이가 없더란 말이지. 골목까지 가웃 가웃 어느 집을 찾는지 말도 듣지 않던 가랑잎들까지 숨을 죽이고 만다. 그러면서도 울타리 앞을 두고 몇 발치 서성이는 걸 보니 아마 제 집도 아닌갑네. 어찌지. 날은 저물고 ——

돌아켜보면 사람이야 가지 못할 곳이 없을 것 같은 데도 그들은 새삼 망설인다. 누군가가 옷소매 스쳐가도 흔적이 없고 누군가가 엿보아도 알리 없는지라 시려운 추녀 밀으로 파고든다. 그것도 잠시 뿐. 발자국도 없이 왔으니 그냥 정붙이고 밀란갑제.

긴긴 겨울밤을 위한 서곡안냥 지들끼리 순백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모든 침묵의 가장자리로 모여드는 데에는 필시 무슨 뜻이 있을게다. 그 무엇인가를 비래

고 바래다 새하얀 염원이 되어 내리는 눈들의 정령! 아무렇게나 향기 없이도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고 들뜨지 않은 저녁을 만든다. 그러고보면 대낮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의 속내를 왜 훑쳐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남루한 행랑이라도 권해보고픈 내 마음은 아직 풋사랑도 모르는 행터로 서슴거리는 너희들에게 어느결에 들키고 만다. 그러면 소란스럽던 내 마음의 병이 정적으로 서서히 가리앉고 순전히 너희들에게 수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만다. 그리고 나만의 발견을 위하여 멈추지 않을 꿈의 여행을 시작한다. 꿈을 꾸기 시작했던 아주 먼 유년시절부터 함박눈을 타고 차근 차근 밤을 새워 꿀지도 모른다. 때로 우연이나 운명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듯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꿈속으로 파묻히고 만다.

언제부턴지 설핏한 어둠이 알찌감치 대밭을 찾아들라치면 이런하게 오지 굴뚝의 창술 타는 연기에 취해가던 저녁 눈은 그저 마음이 바빠진다. 저마다 무슨 생각을 아주 곱게 하며 내려오다 말고 서로 바쁘게 부둥켜 안고나면 깨달음이 온다. 낮 같으면 햇볕이라



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들이겠으나 팔계 타는 대밭집 쇠죽가마의 빼엿건 불빛과 묶은 내음에 그만 온몸이 풀려 널브러지고 만다. 세상사 모든 상념이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서 하얀 세상으로 꿈을 만드는 걸까?

나는 눈을 감으며 좋은 예감에 빠져든다. 고운 그대 뒷모습에 어깨가 있다면 손을 얹고 싶다. 혹 따뜻한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잡고 싶다. 서툰 말이라도 붙여온다면 사랑을 하얗게 속삭이고 싶다. 항상 기분 좋게 나의 뒤를 따라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 몽환 같은 모습에 절실한 그리움을 남기게 한다. 하여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목마름 사이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꽃송이 같은 향기가 없어도 어찌 그리 은근한 친화력이 있을까? 시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넉넉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가꾸고 있는 것이다.

아예 따라가고 싶고 무작정 곁에 있고 싶은 너를 두고 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걱정하고 있다. 아니 어스름 속에 분명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배려도 정녕 너에게는 있을 것이다. 옆에 걸으면서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사랑이라는 안온함을 남겨 주는 네. 그것은 정형화된 기교를 허물고 인류가 영원히 간직하고픈 흠시위다. 가끔 다투고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처럼 그것은 저녁 한순간 간결한 운치를 준다. 오히려 이는 오랫동안 따스함으로 보존되어 정인을 위해 심금을 울려준다. 이 때쯤 나는 이습하게 이습하게 불어에는 남모르는 흥분 때문에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

고 만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싸는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정한(情恨)의 시인, 눈물의 시인이라 부르던 박용래 시인의 「저녁 눈」을 읊조리다 말고 나는 어느새 도깨비마져 온데간데 없는 헛간을 돌아 더 늦은 저녁이 오기 전에 마실은 떠난다. 저녁 눈이 봄비는 곳을 찾아간다. 아무렇게나 버려져 임자 없는 것, 인간의 손을 안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것, 그 온순하며 조용하고 소박하며 겸손하고, 가특하며 어여쁜 것에 대하여 탐색을 하기 위해 헤맬 것이다.

그들은 뒷간 지붕 위에도, 하나의 풀포기 위에도, 찢레덤불 위에도, 다복술 위에도, 까치등지 위에게까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만날적마다 온채를 포근하게 덮는 지라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호기심이 넘쳐 내 살던 두메는 온통 하얀 세상이 된다. 얼핏 누추하고 초라해 보였던 울타리며 대싸리며 웅배기며 짚가리며 시금과 리 한 조각에도 차츰차츰 본시 자기와 같은 옷을 입혀 나간다. 인간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과장하거나 덧씌워버린 일상의 모습들을 미지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듯 너를 따라 무작정 헤매다보면 손발이 시리고 무릎까지 시리고 또한 작아든 가슴마저 시려드는데 이제 난 어찌할까나. 어찌할까나. 내 그토록 꿈꾸



있던 설인(雪人)이! 잠시 잊었던 사람이! 나는 분명 서럽게도 한 때 그대를 잠시 잊었노라. 깊어가는 겨울 밤처럼 오래전 이미 그것은 내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강요한 나의 자존심의 행위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것이 내겐 긴긴 사연으로 허공에 남겨졌음을 미처 몰랐다. 시간과 침묵속에 알릴 수 없이 맴돌리는 부끄러움은 정형코 그대로 나의 진실이었다. 이 겨울 저녁에 어울려 다시금 그리워 오는 마음의 벗이여! 잊혀지지 않은 여운이여! 지워지지 않은 한 때의 영상이여! 말을 좀 건네보렴.

이 겨울 나는 함박눈 한 송이 한 송이에 그대를 만나보며 거듭 용서를 바라고 있단다. 기도를 경험하듯 마음이나 사랑이나 연민마저도 억지로는 아니되는 것임을 내 애달픔으로 비로소 깨달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깊었던 내 방랑 끝에 또 다시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이여! 그대 지금 어느 장소 어느 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고 짧고 갈무리 될 수 없는 지난 일까지 곰삭여주는 이량을 가져다오

몸서리 치는 감성과 이성의 곤두박질을 몇 번이고 거듭하고 나서 몸을 눕힐지라도 이 조용한 시간 소리쳐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다는 안타까움까지 이제는 감사하고 싶다. 미안스럽고 후회스럽던 지난 날의 미움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었다면 불자의 미소같이 쓸쓸히 웃으며 나는 잊을지 모른다. 어디에 기대듯 무겁게 쓰러질지 모른다. 어느 희미한 불빛이라도 스며들지 모른다. 용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다만 오직 한가지는 못내 그리운 마음의 벗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듯 감은듯 만듯한 눈길로 행선(行禪)을 하고 나면 천년의 밤을 꿈꾸는 선녀들의 옷벗는 소리까지 엿들을지 모르겠다. 저녁 눈은 시폰시폰 잘도 내린다. 사랑방 아궁이 숯불에 얼굴을 비추면 이제 나는 그만 흥시가 되어 있겠지. 정말이지 저녁 눈은 시폰시폰 참으로 잘도 내린다. 솔가지에 눈썹을 달고 도깨비바늘까지 눈송이를 달았는데도 하늘나라 나의 선녀님은 송이송이 하얀 속옷을 잘도 벗는다. 나의 드락을 다 덮어가더락 뉘지 몰라도 창호지엔 불빛만 새네 그려. 진정 무언가 살아있음이야. 새해의 눈부신 햇별으로 눈꽃처럼 고고하고 순결한 세상이 반짝거리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려는 것이야.

- \* 1960년 전북 장수 출생
-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 \* 중앙일보 : 촛불과 차 한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달 등 발표
- \* 대전일보 : 행복한 미소, 코스모스, 기다림, 향수, 방 등 발표
- \* 독서신문, 샵터 등에 작품 다수 발표

